출판물 수출확대 위해서는 '우물안 개구리 식'인식 바꿔야

문화관광부는 최근 '한국 출판의 수출 활성화 방안연구' 라는 논문집을 발간했다. 한국출판연구소에 의뢰해 발간된 이 논문집에는 출판무역 현황과 한국출판의 위상, 주요국의 출판수출 현황과 시사점, 한국출판의 수출실태와 문제점, 수출활성화를 위한 관련업계의 과제, 출판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수록하고 있다. 다음은 '출판수출의 의의' 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

영국에는 셰익스피어와 디킨즈가 있고, 미국에는 트웨인과 헤밍웨이가 있으며, 중국에는 나관중과 풍몽룡이 있다. 그리고 스페인에는 세르반테스가 있고, 독일에는 카프카가 있으며, 프랑스에는 카뮈가 있고, 러시아에는 톨스토이가 있다. 일본에는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는 하루키가 있다. 그야말로, 여기서 각 나라를 대표하며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잘 그리고 있는 작가를 한 사람씩만 언급해도 지면이 모자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엔 누가 있을까. 지금까지 언급한 작가들처럼 자국 독자들은 물론 전 세계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을 낸 작가로 국내에선 누굴 꼽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영국 문학사를 넘어서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뛰어난 작가 중 하나다. 그가 남긴 비극, 희극, 사극, 소네트 등은 그 어느 것 하나 모자람 없이 모두 주옥같은 작품들이 있다. 그래서 4백여 해가 지난 지금에도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최근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며 등장한 작가가 있다. 바로 조앤 롤링이다. 그는 〈해리포터〉라는 한 권의 책으로 전 세계를 평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성은 그 끝간데를 헤아릴 길이 없을 정도이다. 혹자는 말한다, 그가 축적한 재산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산을 능가한다고. 그리고 미국은 우리 보다 훨씬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의 역사와 본질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핀의 모험〉과 〈톰소녀의 모험〉이 있다. 이 두 작품 역시 19세기 중 후반에 출판된 이후, 21세기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토니 모리슨, 노먼 메일러, 토머스 핀천 등 내로라 하는 작가들이 세

계 출판시장의 정상에 군림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다빈치 코드〉를 출간한 댄 브라운이라는 무명작가가 또 세계의 출판계를 평정하고 있다.

중국은 〈삼국지 연의〉와 〈동주 열국지〉 등을 통해 이미 기원전 역사로부터 거의 1천 년에 달하는 역사를 세계 독자들에게 알리면서 자국의 역사가 얼마나 유구한지, 그리고 얼마나 광활한 영토를 누벼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상가를 내왔는지 등의 사실들을 자연스럽게 과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엔 하루키가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일본의 문화와 신세대의 감성을 진솔하게 그려 보이고 있다. 이는 바로 다른 여러 나라 독자들에겐 친숙함으로 다가서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훌륭한 매개 역할을 하기에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맞설 작가로 누굴 꼽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떤 작품을 내세울 수 있을까. 〈로미오와 줄리엣〉에는 〈춘향전〉을, 〈허클베리핀의 모험〉에는 〈홍길동전〉을,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로 조정래, 황석영, 이문열, 박경리 등을 그 반열에 올릴까? 〈춘향전〉은 권선징악과 해피엔딩으로 독자들에게 기쁨과 안도감을 안기는 반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면서 비극적인 결말로 끝을 맺어 무척이나 긴 여운을 남긴다. 〈홍길동전〉은 시대상을 적극 반영하며 기존 질서체제에 대한 도전을 그리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허클베리핀의 모험〉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리얼리티면에서는 홍길동전이 〈허클베리핀의 모험〉에 약간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허균의 스토리 상황 설정과 상상력은 결코 마크 트웨인에 뒤지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신분을 넘어선 사랑과 부패한 사회상에 대한 조롱을 담고 있는 〈춘향전〉 역시 〈로미오와 줄리엣〉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비교하는 자체가 넌센스일 수도 있겠지만, 오랜 세월간 작품 하나 하나에 혼에 혼을 거듭 실어 발표한 조정래의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그리고 박경리의 〈토지〉는 조앤 롤링이나 토니 모리슨 등의 작품에 비해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진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그저 소중하게 간직할 줄만 알았지 그것의 가치가 더욱 빛나도록 만방에 자랑하고 알리는 것에 그간 너무 인색해 왔다.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도 그간의 해외출판 저작물 수입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내 출판 저작물을 적극 해외에 홍보하고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하고 다양한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때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그저 소중하게 간직할 줄만 알았지 그것의 가치가 더욱 빛나도록 만방에 자랑하고 알리는 것에 그간 너무 인색해 왔다.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도 그간의 해외출판 저작물 수입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내 출판 저작물을 적극 해외에 홍보하고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하고 다양한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때가 되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혼이 담긴 훌륭한 지적 재산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한다는 대의명분과 함께, 그것을 통해서 영세한 국내 출판계의 수입구조에 변화를 기함은 물론, 장기간 침체되어 있

우선, 서울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도서전' 이 국제도서전이면서 국제적이지 않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세계 몇 개국에서 몇 개 출판사가 참여했다는 수치상의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팔릴 만한, 혹은 그 나라 독자와 출판인들이 관심을 둘만한 물건을 누가, 얼마나 들고 왔는가이며, 또한 우리 물건을 수입해 갈 업체나 담당자들이 얼마나 왔느냐 이다.

는 국내 출판시장 전체에 커다란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일석삼조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출판계가 나아가야 할 명분이자 의무이며, 그것만이 한국의 출판계가 세계 출판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역사적으로 문화는 경제적 부를 지닌 나라로부터 그렇지 않은 나라로 전파되었다. 그것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치와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은 무척이나 자연스럽다. 또한 문명과 지식이 발달된 나라의 문화가 그렇지 않은 나라로 파급되는 현상 또한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는 한국의 출판시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미주와 유럽의 저작물들은 자국의 경제적 부와 고도로 발달된 다양한 문화를 업고 비교적 손쉽게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물줄기가 수평적으로도 이동하듯이 동일 언어권과 인접국가 혹은 부와 문화의 수준이 비슷한 나라간에도 활발한 저작권 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물줄기가 역류하는 현상이 드물 듯, 경제적으로 후진국에 속하는 나라의 저작물(지적재산권)이 선진국으로 전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니, 있더라도 쉽지 않다.

한국 출판시장에서 해외 저작물을 들여오는 것이 국내 저작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가 여기 있다. 단적으로, 소위 선진국이라 칭하는 북미나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출판저작물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세계 출판시장의 상황을 냉정히 고려했을 때 우리의 문화에 대해 일단은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가 동남아 국가들이나 중동 국가들의 저작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현상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세계의 높고 두터운 벽을 넘을 준비를 꾸준히 하면서, 인접 국가에 우리의 저작물을 더욱 활발히 전하는 일이다. 중동과 러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진출하고, 태평양을 넘어 미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을 교두보로 삼는 전략부터 우선 세워야 한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전략을 현실화하고 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저작물이 활발히 세계 시장으로 퍼져나가는데,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다. 현재 서서히 그 성과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작 단계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어진다면 머지 않은 시점에 우리의 저작물들이 세계로 진출할 것이다. 한 나라의 문화를 다른 나라로 전파하는데, 그 속도와 효과면에서 가장 손쉬우면서도 영향력이 큰 매체가 바로 책과 영화다. 이 분야의 수출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에 대한 해외에서의 관심도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경제효과란 그 수치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궁무진하고 지속적이다.

실례로 최근 중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국내 도서 저작물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출판계가 자력으로 그런 상황을 이끌어 냈다기보다는 영화와 텔레비전 방송의 수출에 따른 결과와 큰 연관이 있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의 문화가 전파되고 또한 그를 통해 경제적 효과가 창출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꺼릴 것이 없다.

세계 출판계에서 한국 출판시장의 위치와 역할은 무척 중요하게 평가된다. 그리고 한국 출판시장의 규모는 상위권에 속한다. 그래서 해외 선진국 출판인들에게 한국의 출판시장은 더욱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출판시장에서 한국 출판시장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한국의 출판시장이 일면, 그 위치와 규모와는 달리 불균형을 이룬 채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출판시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한 미주나 유럽 출판 선진국들이 자국의 출판물을 팔기 위한 시장으로서 중요하지, 그들 나라로 출판 저작물을 사 들여가는 시장으로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출판계는 지금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의 불균형적인 비즈니스의 틀을 깨고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문화교류와 출판 비즈니스를 위한 보다 진취적인 전략 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현재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매년 개최되는 '서울국제도서전'은 안타깝게도 세계 출판시장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도서전 직후 발표되는 다양한 결과나 성과물들을 대할 때, 필자의 견해와 시각에서는 늘 아쉽기 그지없다. 심지어, 때로는 그 내용들이 현실감마저 떨어져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여기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우선, 서울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도서전'이 국제도서전이면서 국제적이지 않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 세계 몇 개국에서 몇 개 출판사가 참여했다는 수치상의 데이터는 사실상 국제 출판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그다지 공감되지 않는 데이터들이다. 중요한 것은 팔릴만한, 혹은 그 나라 독자와 출판인들이 관심을 둘만한 물건을 누가, 얼마나 들고 왔는가 이며, 또한 우리 물건을 수입해 갈 업체나 담당자들이 얼마나 왔느냐 이다. 좀더 과장하면, 단순히 부스를 마련, 체면 지키기 식으로 앉아서 자사의 도서 몇 권을 보여주는 것은 활발한 문화교류와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 이들에겐 아무런 흥미를 끌지 못한다는 얘기이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세계의 높고 두터운 벽을 넘을 준비를 꾸준히 하면서, 인접 국가에 우리의 저작물을 더욱 활발히 전하는 일이다. 중동과 러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진출하고, 태평양을 넘어 미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을 교두보로 삼는 전략부터 우선 세워야 한다. 우리 저작물이 활발히 세계 시장으로 퍼져나가는데, 적어도 지금으로서 그것이 최선이다.

한국 출판계는 지금처럼 해서는 앞으로 비전이 없다. 더 많은 외국인들을 유치해야 한다, 그것도 가능성 있는 출판인들을 유치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의 출판사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가까이 있는 아시아권 국가의 주요 출판사들 중심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준비없이는 안될 일이다. 반드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잔치자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 출판계의 독자적인 힘이 부족하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 출판계와 손잡고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하나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을 문제다. 한국,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의 유력 출판사들만 한자리에 모여도 그 잔치의 위력은 자못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들의 출판계 불황과 '우물안 개구리'식의 틀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아시아권 내에서 스스로의 힘을 결집시켜 스스로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와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세계 시장으로 진입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출판계가 나가야 할 길이며, 아시아권 출판계가 나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할 때 한국에서도 제2의 조앤 롤링과 댄 브라운이 탄생될 것이다.